

구례 사성암 명승지 보존지역 축소 '가닥'

반경 500m서 100m 이내로 당초 면적 248만㎡의 6%로 줄어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 될 듯

1년 넘게 끌어온 구례 사성암 명승지 지정 해제 문제가 해제 불허 대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9일 구례군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중 명승지 지정 해제를 대신해 구례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구례군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구례군 사성암명승지해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성암의 국가명승지 지정으로 사적 재산권 침해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명승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내는 등 주민운동을 펼쳐왔다. <광주일보 2020년 11월 18일자 7면>

이후 지난 2월 문화재청은 현지조사를 하고 명승지 지정 해제는 불허하는 대신 협의를 거쳐 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사성암 주변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축소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상정된 조정안은 현재 사성암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100m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사성암만의 문화재 보존지역은 7만1129㎡이며, 주변 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127필지에 214만8686㎡이다. 이중 87%인 186만7199㎡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28만1487㎡는 21필지로 국공유지이다.

이처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100m 이내로 축소 할 경우 보존지역이 당초의 248만6686㎡의 6%에 불과한 약 12만8000㎡로 크게 축소돼 재산

? 사성암 구례군 문척면 오산(해발 531m)에 있는 암자로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가 백제 시대인 서기 544년에 세웠다고 전해지며 원효, 의상, 진각, 도선 등 고승 4명이 수도 하였다 하여 사성암으로 불린다. 지난 2014년 8월 국가명승 제111호로 지정됐으며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 할 수 있고 비경이 많아 매년 20여 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다. 박경리 원작소설 '토지'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권 침해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구례군의 설명이다.



구례 사성암 명승지 지정 해제 문제가 해제 불허 대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 구례군 문척면 오산에 있는 사성암. <광주일보 자료사진>

김영민 구례군사성암명승지해제추진위원회 위원장(구례군지역발전혁신위원회)은 "명승지해제가 아닌 보존지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어 유감이지만 조정안 대로 결정되면 당초 면적의 6%로 줄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성암 인근 죽마리 주민 A(65)씨는 "문화재청이 보존지역을 지정할 때 500m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지형과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지정했다면 이같은 일은 애초 없었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일률적인 법 적용에 아쉬움을 표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 옥수수 밭서 열대거세미나방 발견



보성 득량면 옥수수 재배지에서 열대거세미나방(사진 왼쪽 위)이 발견됐다. <보성군 제공>

보성의 한 옥수수 재배농가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이 발견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득량면 한 옥수수 재배지에서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돼 예찰과 함께 방제에 나섰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주로 옥수수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고, 열매에 파고 들어가는 등 작물의 생육을 저해한다. 이로 인해 상품성과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다.

보성군은 기상 흐름과 예찰 간격으로 볼 때 지난 8-9일께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2주 가량 빠른 시

기다. 열대거세미나방의 방제는 성충이 발견된 뒤 10~14일째가 적기다. 애벌레가 야행성인 점을 고려, 가능한 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난 뒤 등

야제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열대거세미나방은 초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옥수수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예찰과 적기방제를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회계 지출 시스템 기업 제로페이 도입

전남 최초... 지역 소상공인 도움

곡성군이 전남 최초로 기관 회계 지출 시스템에 기업 제로페이를 전면 도입한다.

곡성군이 기업 제로페이를 도입한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업 제로페이는 제로페이의 법인 전용 서비스로 업무주진비나 특근매시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기업 제로페이는 NH모바일G 앱을 통한 직불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도 편리하고 자금관리

나 회계관리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군은 시행에 앞서 지난 13일 각 부서의 지출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일부터 기업제로페이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업 제로페이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고 지역소상공인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곡성군은 2019년 도내 최초로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곡성신청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모바일상품권 월 평균 사용액은 4억5000만원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광양시,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광양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에 재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재지정된 지자체는 교육부의 특성화사업 참여, 평생학습 컨설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광양시는 평생학습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 문해학습자를 위한 적극적 지원 노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증축과 실현 가능

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평생교육 전담조직 인력배치(평생교육사), 종합적인 평생교육 성과관리 등 미흡 및 개선사항은 '광양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평생학습도시 정착 및 특성화된 사업 발굴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인 평생교육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내 땅이 여기구나"...여수시 마을 단위 맞춤형 지적도면 '호평'

지번·면적 등 표시 245개 마을 배부

여수시가 농어촌마을 주민 누구나 자기 토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부한 '마을단위 맞춤형 지적도면'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마을 단위 맞춤형 지적도면과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표시된 지번별 조서 책자를 제작해 관내 245개 마을에 배부했다. <사진>

이번에 제작 배부한 맞춤형 지적도면은 사용자 중심의 시각으로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노령인구가 늘어드는 농어촌 현실에 맞춰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적도와 임야도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했다.

마을 주변은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확대 출력하고, 고품질 코팅종이를 사용해 다수가 이용해도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적도면을 대형(가로 85cm×세로 118cm)으로 제작했고, 달력



형식으로 마을회관 벽면에 걸어 대다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토지의 위치 정보와 지

목, 면적 등 세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